

## 알퐁스 도데 (1840~1897)

우리에게는 《마지막 수업》, 《별》 등의 단편으로 잘 알려진 알퐁스 도데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이며 시인으로 명성이 높다.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여 가난하게 보냈으나, 형의 도움으로 1857년부터는 파리에서 문학에 전념하였고, 1858년에 《사랑하는 여인들》이라는 시집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하였다.

1866년에 발표한 《풍차 방앗간에서 온 편지》는 도데가 프로방스 지방에서 요양생활을 할 때 신문에 연재하던 단편들을 모은 것으로, 프랑스 남부의 서정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며 《별》도 여기 실려 있다. 한편, 이와 쌍벽을 이루는 단편집 《월요 이야기》는 1873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보불전쟁(프로이센-프랑스 전쟁)과 파리고민에서 취재한 내용이 41편 담겨 있는데, 이 중 《마지막 수업》이 특히 유명하다. 이 밖에도 도데는 《쾌활한 타르타랭》, 《동생 프로몽과 형 리슬레르》, 《아를르의 여인》 등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알퐁스 도데는 사실주의나 자연주의 작가로 불리기도 하지만, 특유의 재치와 인간미, 아이러니 등이 담긴 그의 작품들은 어느 유파에도 속하지 않는 그만의 독자성을 드러낸다.

「별」은 프랑스의 뤼브롱 산을 배경으로 어느 순박한 양치기의 순수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나’는 산에서 혼자 양떼를 돌보며 지내는 스무 살의 젊은이인데, 주인집 딸을 남몰래 연모한다. 어느 일요일, 뜻밖에도 산에 양식을 가져왔던 아가씨는 폭풍으로 불어난 강물 때문에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산으로 돌아와 하룻밤을 묵게 된다. 나는 아

가씨를 거처에 잘 모시지만, 아가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나와 함께 모닥불 앞에 앉는다. 나는 아가씨에게 별들에 관한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 주는데, 아가씨는 어느덧 내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든다.

「**마지막 수업**」은 알자스와 로렌 지방의 영토 귀속 문제로 보불전쟁이 벌어지던 때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프랑스의 알자스 주에 사는 소년 프란츠는 지각해서 서둘러 학교로 달려간다. 그런데 평상시와 달리 학교 분위기가 매우 조용하고 엄숙하며, 마을 사람들도 교실에 앉아 있다. 선생님이 오늘이 프랑스어로 공부하는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자, 프란츠는 그동안 공부를 게을리 하고 놀기만 했던 일을 후회하며 마지막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 별

## 【제1장】 반가운 손님

p. 12-13 내 인생의 한때, 나는 쿼브롱 산의 양치기였다. 그곳은 아주 외진 곳이었다. 나는 종종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한 채 그곳에서 몇 주를 보내곤 했다. 그동안에 나는 양떼들을 지키며 내 개와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곤 했다.

때때로 난 다른 사람을 보기도 했는데, 그는 평소에 쿼브 산 위에 사는 고독한 사람이었다.

때때로 그는 간단한 대화도 하고 바깥세상 소식도 들으러 내려오곤 했다. 나는 또한 별난 광부들도 보았다. 그들은 내가 있는 들판에서 그리 멀지 않은 탄광에서 일했다. 이들은 모두 순진한 사람들이었고, 세상의 천박한 욕망을 좋아하지 않았다.

p. 14-15 약 2주에 한 번씩, 한 사람이 노새를 타고 나에게 양식을 갖다 주도록 보내졌다. 이 사람은 보통 저지대에서 온 농장 머슴이거나 늘 불그스름한 색의 모자를 쓰는 할머니였다. 나는 그들로부터 저지대의 모든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나를 가장 흥미롭게 하는 소식은 무슨 말이든 나의 주인 집 딸에 관한 것이었다.

주인집 딸은 근방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였다. 그러나 나는 그녀 아버지의 양떼들을 지키는 스무 살의 초라한 양치기일 뿐이었다. 나는 저지대에 잠생긴 젊은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늘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했다. 그들은 가난한 양치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그녀에게 해줄 수 있었다.

p. 16-17 그녀는 허영심이 강한 아가씨라, 나는 그녀가 항상 더 부유한 남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인사하는 것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다.

지난 번 양식이 나에게 전해진 지 두 주가 지났다. 그날은 어느 일요일이었고, 나는 내 양식을 가지고 올 노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주인집의 실수로군.’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에게 식량 보내는 것을 잊어 버렸나봐.’

나는 한낮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나는 누군가 오나 지켜보았지만, 멀리 아주 짙은 폭풍이 있다는 걸 알아챘다. ‘폭풍 때문에 나에게 양식을 전해줄 사람이 늦는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폭풍 때문에 지금 길 상태가 아주 나쁜 게 분명해.’

p. 18-19 세 시간이 더 흘렀다. 이제 폭풍은 지나갔다. 나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제는 아름답고 깨끗한 파란 하늘이었고, 태양은 따사로운 햇살을 언덕 위에 던지고 있었다. 시내를 따라 흐르는 귀에 익은 물 소리는 내 기분을 밝게 해 주었다. 그때 나는 또 다른 귀에 익은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노새의 목 주위에서 울리는 종 소리였다. 나는 농장 머슴인지 아니면 빨간 모자를 쓴 할머니인지 보려고 기다렸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농장 머슴도 할머니도 아니었다. 주인집 딸인 아가씨였다.

내가 놀라서 보고 있을 때, 그녀가 노새를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노새에서 내려와 말했다. “농장 머슴은 아프고, 할머니는 자기 아이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 내가 왔죠.” 그녀는

또한 길을 잃었다고 말했다.

**p. 20-21** 하지만 내가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을 때, 그녀의 눈은 춤을 추었다. 그녀는 대신 산에서 춤을 추기 위해 멈췄기 때문에 늦은 것처럼 보였다. 그 신선한 오후의 공기 속에서 그녀는 정말 아름답게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서 거의 눈을 뗄 수 없었다. 나는 전에는 그녀와 그렇게 가깝게 서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아주 멀리서 그녀를 볼 뿐이었다. 겨울에 양떼들과 저지대로 돌아갔을 때, 나는 저녁 식사를 하러 농장에 갔다. 그럴 때, 나는 그녀가 어느 하인에게도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도도하게 방을 걸어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녀는 늘 매우 도도해 보였다. 이제 그녀는 바로 내 앞에서 있었다. 나는 그녀를 독차지했다. 나는 그녀가 노새에서 내 식량을 내리는 동안 지켜보았다.

**p. 22-23** “그런데 당신이 자는 곳은 어디죠?” 하고 아가씨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보여 주었다. 내 침대는 짚과 양가죽만으로 만들어진 아주 소박한 자리였다. 바로 위 벽에는 내 망토와 지팡이가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아주 재미있게 생각했다.

“당신은 초라한 양지기군요!” 그녀가 외쳤다. “여기서 살아요? 당신은 늘 아주 외롭고 지루하겠군요!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하루하루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당신 생각만 해요.”라고 대답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사실, 나는 한 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주인집 딸은 내가 당황해하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그것을 매우 즐겼다. 그녀는 날 놀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요정들이 여기로 당신을 불러 오나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면서 웃으며 물었다.

**p. 24-25** 나는 그녀가 요정처럼 곱고 우아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서둘러 떠날 준비를 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고, 그녀가 사라져가는 동안 나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노새의 발자국 소리는 잠시 더 계속되었다. 그 발자국 소리는 한참 동안 내 곁에 머물렀다. 나는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계속 그 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 소리는 나의 아주 유쾌한 손님을 떠올리게 했다.

## **[ 제 2 장 ] 하늘의 보석**

**p. 28-29**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내 일을 시작했다. 순식간에 밤이 찾아왔고, 나는 저녁 일을 준비했다. 나는 내가 자는 곳에서 가까운 들판으로 양떼들을 데려왔다. 내가 자질구레한 일을 끝내고 있을 때, 집 근처 아래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주인집 딸이 돌아왔다. 그녀는 몸을 떨며 추워하고 젖어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저지대로 가는 길에 당신도 안다시피 강이 있죠. 그런데 폭풍으로 강물이 넘쳤어요. 난 건 려고 했는데, 물에 빠질까봐 두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는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냥 여기로 돌아왔어요.”

**p. 30-31** 그녀는 끔찍한 상황에 처한 것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아무도 그녀를 찾으러 여기에 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양떼를 뇌두고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줄 수 없어.’

나는 몹시 걱정되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산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옳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나는 생각했다. ‘7월의 밤은 짧아. 겨우 하룻밤뿐인데 뭘.’

그녀가 발과 드레스를 말릴 수 있도록 난 서둘러 불을 지폈다. 나는 먹을 것과 우유도 준비했다. 그러나 그녀는 먹거나 몸을 말리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나도 거의 울고 싶었다.

이제 바깥은 아주 캄캄했다. 하늘에는 저녁놀 빛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았다. 나는 주인집 딸에게 집으로 들어가서 쉬라고 설득했다. 나는 그녀가 쉴 수 있도록 새 양가죽을 깔아 주었다.

**p. 32-33** 우리는 잘 자라는 인사를 했고, 나는 밖으로 나갔다. 나는 현관 입구에 앉았다. 나는 내 집에서 쉬고 있는 아가씨 이외의 것들을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아주 소중한 사람을 돌보는 큰 책임을 맡은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내가 돌볼 책임을 맡은 그 어떤 생명체보다 더 소중했다. 나는 행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 밤에는 별들이 유난히 더 아름답구나.’

내가 막 생각을 마쳤을 때, 아가씨가 내 뒤에 나타났다. “잠이 안 와요.”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밖에 있는 동물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불가에 앉고 싶어요.”

그녀는 불가에 앉았고, 나는 두르고 있던 염소 가죽을 그녀에게 주었다. 나는 캄부기불을 뒤적거렸다. 그러자 곧 아주 따뜻해졌다. 우리는 말없이 불가에 앉았다.

**p. 34-35** 아름다운 별이 내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아름다운 밤이었다. 그날 밤, 모든 생명체들은 활기가 넘쳐 보였다. 어쩌면 그들도 아름다운 별을 보고 싶어 했을지 모른다. 개구리들과 벌레들은 더욱 더 큰 소리로 노래했다. 연못에 비친 불꽃은 더욱 더 찬란하게 빛났다.

그날 밤은 너무나도 상쾌했다. 폭풍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주인집 딸이 그날 밤 나와 함께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다.

나는 그녀를 보고, 그녀가 떨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밤의 소리들에 놀라서, 그녀는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p. 36-37**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별뚱별을 보았다. 그것은 하늘을 쏜살같이 날아가서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저게 뭐예요?” 아가씨가 나에게 물었다.

“그것은 방금 천국으로 인도된 영혼이죠.” 하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다른 젊은 남자와 아주 다르군요.” 그녀가 말했다.

“전 다른 평범한 남자와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서의 제 삶은 아주 다르죠. 전 별들과 아주 가까이 살고 있어요. 전 평지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저 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더 많이 알죠.”

아가씨는 손으로 턱을 짚 채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염소 가죽을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신성한 양치기처럼 보였다!

“저기 또 있어요.” 그녀는 또 다른 별뚱별을 가리키며 외쳤다.

“내 생전 아름다운 별들을 이렇게 많이 본 적은 없어요. 당신은 저 별들의 이름을 알아요?”

“물론이죠, 아가씨!”라고 나는 대답했다.



**p. 38-39** “저 위를 보세요! 보이세요? 저것은 은하수예요. 그리고 저것을 보세요. 우리 저것을 프랑스로고 상상해 봐요! 그것이 스페인까지 쪽 뻗어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많은 군인들은 전투하러 가는 길을 찾는 데 저 별들을 이용했어요. 갈리스의 자크도 그 중 한 사람이죠. 은하수는 그가 벅 휘트와의 전쟁 중에 길 찾는 것을 도왔답니다!”

나는 그녀에게 계속해서 별들에 대해 말했다.

“저 을 보세요! 저 별들의 무리가 보이세요? 저것은 마음의 전차예요. 자세히 보면, 네 개의 굴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세 개의 별이 있어요. 보이세요? 그것들은 세 마리의 짐승이에요. 그리고 저기 있는 것은 갈퀴예요. 많은 사람들은 또한 그것을 오리온 또는 삼왕성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처럼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경우, 우리는 그것을 시계로 사용하죠. 바로 지금, 벌써 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p. 40-41** “저 위를 보세요. 그쪽은 남쪽이에요. 한 무리의 별들이 보일 거예요. 그것을 장 드 밀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별들의 햇불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많은 양치기들은 저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에서, 장 드 밀랑은 삼왕성과 플레이아드로 알려진 별과 함께 그 역시 별인 한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받죠. 하지만 플레이아드는 결혼식에서 아주 빨리 나오죠. 저기 하늘에 저 길이 보일 거예요. 저것은 위쪽 길인데, 플레이아드가 그 길을 떠나갔죠. 삼왕성은 이렛길을 떠나기서 플레이아드를 따라잡았어요.

장 드 밀랑은 아주 게을렀어요. 그는 잠이 들어서 결혼식에 남아 있었어요. 잠에서 깨자, 그는 매우 화가 나서 삼왕성에게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 때문에, 삼왕성은 장 드 밀랑의 지팡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들 모두 아름다운 별이에요. 하지만 금성이 가장 아름답죠. 그것은 밤에 나오는 첫 번째 별이에요. 하늘에 있는 양치기의 친구죠.” 하고 나는 말했다.

**p. 42-43** “양치기들에게는 그 빛나는 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마글론이죠. 토성을 쫓아가 7년마다 한 번씩 그와 결혼하는 별이란 뜻이에요.”

“별들이 결혼을 하다니!” 그녀가 외쳤다.

“네, 물론 할 수 있죠.” 내가 대답했다.

내가 그녀에게 이것을 막 설명하려고 할 때, 내 어깨 위에 뭔가가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녀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서늘한 산들바람에, 그녀의 머리를 묶은 리본과 끈이 나부꼈고, 그것은 가장 매혹적인 광경이었다.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고, 우리는 새벽의 첫 서광이 비출 때까지 그렇게 있었다. 나는 그날 밤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그 기억은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 중의 하나이다. 그녀는 잠을 잤고, 산들바람만이 약하게 불고 있을 뿐, 밤은 고요했다. 별들은 하늘에서 빛났고, 나는 가장 멋진 별이 하늘에서 길을 잃고 지금 내 어깨에서 쉬고 있다고 상상했다.

## 마지막 수업

### [ 제 1 장 ] 학교에 지각하다

p. 50-51 집을 나섰을 때, 내 심장은 두근거렸다. 나는 학교에 늦고 있었다! 나는 아멜 선생님께서 엄청 혼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학교에서 분사에 대한 시험을 볼 건데, 나는 전혀 공부하지 않았다.

‘아멜 선생님에게 호되게 야단맞을 거야.’ 나는 생각했다. ‘오늘은 정말 환상적인 날이야.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 바깥은 아주 따뜻하고 화창하네.’

나는 도망가서 들판에서 하루를 보낼까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나는 학교 가는 길을 계속 서둘러 갔다. 나는 숲을 지나가며 나무에서 즐겁게 지저귀는 새들의 감미로운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p. 52-53 숲을 지나가면서, 나는 숲 가상자리의 들판을 급히 지나갔다. 프로이센 병사들이 들판에서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밖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학교에 가지 않으면, 내일 아멜 선생님에게 아주 심한 벌을 받을 거야.’

나는 아주 빠르게 걸어서, 곧 마을에 들어섰다. 나는 마을을 기로질러 기면서 시청 앞을 지나갔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시청 앞 게시판에 모여 있었다. 그들 모두 게시판에 뭐가 쓰여 있는지 보려고 서로 밀고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마을의 나쁜 소식들이 모두 거기서 나왔다. 패전, 질병, 부대장 명령 등등.

“정말로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었어. 드디어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는지 궁금한걸.” 나는 궁금했다.

p. 54-55 만약 수업에 늦고 있지 않았다면, 나는 사람들이 무엇에 흥분했는지 보려고 멈춰 섰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갈 길을 계속 갔다. 나는 마을 대장장이인 바흐터 씨 앞을 지나갔다.

“서두를 필요 없다, 애야!” 바흐터 씨가 외쳤다. “넌 제 시간에 도착할 거야.”

‘하지만 벌써 늦었는데.’ 하고 나는 생각했다. ‘아저씨는 그저 날 놀리는 거야.’

곧 나는 학교 건물 바로 밖에 있는 아멜 선생님의 정원으로 들어갔다. 나는 매우 숨이 찼다.

나는 교실로 들어갈 준비를 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이상하네. 아주 조용하잖아. 평소에는 엄청 시끄러운데. 보통 때는 다른 학생들이 자기 책상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수업 내용 복창하는 소리, 그리고 아멜 선생님의 커다란 자가 교탁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런데 오늘은 너무 조용한걸!’

p. 56-57 ‘이건 정말 끔찍해. 오늘은 아멜 선생님이 내가 교실에 들어가는 소리를 분명히 들으실 거야. 들리거나 보이지 않고 교실로 조용히 살짝 들어갈 수 있길 바라고 있었는데. 글썽!’

나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반 친구들이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한 아멜 선생님이 통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매우 심각해 보였다. 특히, 나는 그의 팔 밑에 아주 단단한 쇠자가 있는 것을 알아챘다. 나는 더욱 더 무서워졌다.

내 얼굴은 빨개졌고, 내 심장은 마구 뛰었다. 나는 완전히 겁먹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교실로 들어갔다. 모두 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아멜 선생

님이 회를 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은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엄하지 않았다.

**p. 58-59** 아멜 선생님이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가서 어서 앉아라, 프란츠. 우린 너 없이 시작하려던 참이었어.”

나는 들은 대로 재빨리 했다. 나는 또한 매우 안도했다. 나는 아주 호된 꾸중을 예상했었기 때문이다.

내가 자리에 앉았을 때, 내 심장은 여전히 마구 뛰었다. 나는 몇 분간 가만히 앉아서 아멜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썼다.

마음이 진정되자, 나는 아멜 선생님이 자신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는 주름 잡힌 셔츠에 초록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또한 검은 비단 모자를 쓰고 있었다. 나는 매우 놀랐다.

‘선생님이 오늘 왜 저 옷을 입고 계시지?’ 나는 생각했다. ‘선생님은 학교가 시찰을 받거나 시상식이 있는 날에만 저 옷을 입으시는데, 오늘은 정말 이상한 날이야.’ 나는 교실을 둘러보았다. ‘모두 너무 조용하고 진지해’ 나는 또 다시 생각했다.

**p. 60-61** 몇 분이 더 지나자, 나는 완전히 진정되었다. 이제 나는 교실을 좀더 둘러볼 수 있었다. 한 번 더, 나는 깜짝 놀랐다. 교실 뒤에는 긴 의자리 몇 개 있었는데, 이 의자들은 늘 비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의자에 마을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 심지어 마을의 전 시장도 거기에 있었다. 모두가 아멜 선생님이 하시는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매우 슬프고 조용해 보였다. 그들 중 몇몇은 심지어 낡은 교과서를 무릎에 펼쳐놓고 있었다. 나는 오늘이 왜 이렇게 평소와 다른지 생각하려고 애썼다.

## 【제2장】 농촌 기회

**p. 64-65** 아멜 선생님은 의자에 앉아서 말했다.

“어린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는 마지막 수업이 될 것입니다. 알자스와 로렌의 어떤 학교에서도 이제 더 이상 프랑스어를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어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선생님이 내일 도착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독일어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을 주의 깊게 들어 주세요.”

나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날 아침 마을 광장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했다. ‘그래서 그 야단들이었구나.’ 나는 생각했다. ‘학교에서 독일어만 가르친다는 소식이었어.’

나는 곧 또 다른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 ‘더 이상 프랑스어 수업이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난 절대 더 이상 프랑스어를 배우지 못할 거야! 그런데 난 프랑스어에 대해 거의 알지도 못하잖아. 난 심지어 프랑스어로 쓰는 법도 모르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도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았으니.’

**p. 66-67** 난 내 자신에게 매우 실망했다. ‘난 새들의 알을 찾고, 친구들과 노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 공부하는 데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난 아주 오랫동안 책들이 그냥 짐일 뿐이라고 생



각했어. 책들은 항상 너무 무겁고, 문법은 너무 따분해 보였지.’

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다. 아멜 선생님이 떠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욱 더 슬펐다. 나는 그의 날카로운 쇠자와 불같은 화에 대해서는 모두 잊었다.

나는 아멜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그는 무척 슬퍼 보였다. ‘선생님이 가 없어.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 가장 좋은 옷을 입으셨구나.’

그리고 나서 나는 교실 뒤에 앉아 있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쳐다보았다. ‘그들은 모두 마을 선생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온 거야. 40년간의 가르침! 그건 아주 오랜 시간이지. 그런데 이제 아멜 선생님에게는 모든 게 끝나는 거야.’

**p. 68-69** 책상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내 이름이 불리는 소리가 들렸다.

“프란츠! 프란츠! 프란츠!”

나는 갑자기 현실로 돌아왔다. 아멜 선생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어제 우리가 배웠던 분사를 암송해 주겠니, 프란츠?” 아멜 선생님이 물었다.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어제 배운 분사라고! 나는 수업 시간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 나는 그것을 후회했다. ‘수업 시간에 집중했어야 했는데 너무 어리석어서 그러지 않았어.’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 분사를 암송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처음 몇 단어를 시작하긴 했지만, 계속 할 수 없었다.

“다 못해도 괜찮다.” 아멜 선생님이 상냥하게 말했다. “난 네가 그만큼 충분히 기분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p. 70-71** “자, 여러분!” 아멜 선생님이 말을 계속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에게는 배울 기회가 아주 많지만, 이미 너무 늦은 다음에야 우리는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매일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시간은 많다. 난 내일 배울 수 있다. 난 오늘 나의 삶을 즐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전에, 더 이상의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은 결국 바닥납니다. 그것은 이 마을, 알자스 전체의 문제점입니다. 모두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내일까지 미룹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끝나지 않지요. 이제 여러분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에게, ‘당신은 자신이 프랑스인이라고 하면서 당신네 언어로 말하거나 쓰지 못하는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라고 말할 것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라, 프란츠. 우리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p. 72-73**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교사들, 의사들, 그리고 의원들! 우리 모두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항상 자식들을 들판에 일하러 보내는 데에만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수업 내용을 공부하게 하는 대신 제 정원을 가꾸는 데 얼마나 많이 여러분을 내보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불행한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아멜 선생님은 한동안 말을 계속했다. 그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말했다. 특히, 그는 프랑스어에 대해 말했다. 그는 프랑스어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설명했다.

“프랑스어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명확한 언어입니다.” 하고 그가 말했다.

“그것은 듣기에 아름다우며, 우리는 그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말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말이 반드시 살아남게 해야 합니다. 언어는 감옥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지키십시오.” 아멜 선생님이 말했다.

### 【 제 3 장 】 슬픈 프랑스어 수업

**p. 76-77** 아멜 선생님은 이제 프랑스어 문법책을 들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마지막 수업 내내 그 모든 것이 아주 쉬운 것 같았다. 나는 아멜 선생님이 설명한 세세한 내용을 모두 이해했다.

“왜 전에는 프랑스어가 이렇게 쉽고 흥미롭게 보이지 않았을까?”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그러나 나는 답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이었고, 나는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기회를 잡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프랑스어 수업을 매우 주의 깊게 들었다. 아멜 선생님은 아주 명확하면서도 끈기 있게 수업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전에는 그렇게 잘 가르친 적이 없었다. 나는 혼자 생각했다. ‘선생님은 이 마지막 수업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어.’

**p. 78-79** 우리는 수업을 계속했다. 나는 내기 얼마나 쉽게 모든 것을 이해하는지에 깜짝 놀랐다.

문법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쓰기를 시작했다. 아멜 선생님은 ‘프랑스, 알자스, 프랑스, 알자스’라고 쓰여 있는 새 사본을 우리 모두에게 주어서 우리를 놀라게 했다. 모두 서둘러서 쓰기 시작했다. 나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전에는 보지 못했다.

모두 머리를 숙이고 있었고, 종이 위의 펜 소리만 들렸다. 평소에 학생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주의가 산만해지곤 했다. 하지만 딱정벌레 몇 마리가 교실로 날아 들어왔는데도, 오늘은 한 명의 학생도 그것들을 보지 않았다. 평소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p. 80-81** 곧 비둘기 몇 마리가 지붕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이 서로를 향해 구구 울자, 나는 생각했다. ‘독일인들은 비둘기도 독일어로 울게 시킬까? 그럼 정말 끔찍한 일이 될 거야.’

나는 교실을 좀더 둘러보았다. 학생들은 모두 자기 자리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나는 아멜 선생님을 보았다. 그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는 눈만 움직였다.

그는 교실에 있는 한 사물을 잠시 동안 열심히 본 뒤에 다음 사물로 눈을 돌렸다. 나는 그것이 그에게 큰 충격이었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것은 40년 동안 그가 가르쳐왔던 유일한 교실이었다. 그것은 그의 집과 같았는데, 이제는 그에게서 빼앗길 것이다. 나는 아멜 선생님이 벽, 창문, 책상, 그리고 의자 하나하나를 보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가 지금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어 한다고 확신한다.

**p. 82-83** 아멜 선생님은 창문을 통해 자신의 정원을 내다보았다. 그는 나무와 꽃을 가꾸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불현듯 이 날이 그에게 분명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학교에 자신의 삶을 바쳤다.

곧 우리는 쓰기 수업을 마치고 역사 수업을 시작했다. 나는 아멜 선생님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는 아주 열정적으로 자신의 마지막 수업을 했다. 많은 선생님들은 그냥 수업을 취소했을 텐데.

모두 함께,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읽었고, 교실 뒤 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따라했다. 나는 그들을 보려고 뒤돌았더니, 그들 중 몇 사람이 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쩌면 그들은 농친 기회를 한탄하고 있었을 것이다.

**p. 84-85** 갑자기 시계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12시를 치는 교회 시계였다. 동시에 갑작스런 프로이센의 트럼펫 소리가 났다. 병사들이 훈련에서 돌아왔다. 그들은 이제 학교 창문 바로 밖에 있었다. 그것은 아멜 선생님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었다. 그는 매우 창백하면서도 아파 보였다.

“마을 분들, 어린이 여러분, 전, 전, 전...” 그가 말을 더듬었다. 아멜 선생님은 말을 맺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몸을 돌려 칠판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칠판에 썼다. “프랑스 만세!”

그는 교실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 손짓으로 말했다. “수업은 끝났습니다. 가도 됩니다.”